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섹션

## 도서관 및 관련 기관에서의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위한 지침서

번역: 김미경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사서)  
김희섭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Copyright 200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Guidelines for Audiovisual and Multimedia Materials in Libraries and Other Institutions / Bruce Royan and Monika Cremer et al. The Hague, IFLA Headquarters, 2004.

Korean translation by Mikyung Kim and Heesop Kim ([kmk332@knu.ac.kr](mailto:kmk332@knu.ac.kr); [heesop@mail.knu.ac.kr](mailto:heesop@mail.knu.ac.k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 목 차

1. 배경
2. 개요
3. 지침서의 범위
4. 조직 및 경영
  - 직원
  - 교육 및 훈련
  - 예산
5. 수집 및 납본
6. 저작권
7. 편목 및 서지 접근
8. 아카이빙 및 보관
9. 디지털화 및 보존
10. 인터넷
11. 이용자 서비스
12. 협력
13. 참고자료
14. 시청각 캐리어 리스트

## 1. 배경

모든 관종별 도서관 및 관련 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관한 이 지침서는 수년간의 협의와 협력에 대한 노력의 결실이다.

1972년 UNESCO 공공 도서관 선언서에서는 공공 도서관에서 성인 및 어린이 이용자 서비스에서 시청각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듬해인 1973년에 모든 “비도서 자료” (혹은 다른 정의에 의하면 이용자가 장비사용시 참고해야할 모든 문서)를 아우르는 시청각 자료에 관한 토론회(the Round Table on Audiovisual Material)가 IFLA 내에 결성되었다.

1982년 이 토론회를 통해서 공공 도서관에서 시청각 자료와 장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1판 IFLA 지침서가 만들어졌다. 1987년에 개정판이 계획되긴 했지만 출판은 되지 못했다.

멀티미디어 기록 (예를들어, CD-I와 CD-ROM)과 멀티미디어 온라인 서비스와 같이 도서관에서 새로운 서비스의 성공은 이것들이 전자적으로 조직된 여러 종류의 시청각 미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청각 자료의 혁명에 상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토론회는 1996년에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에 관한 토론회 (the Round Table on Audiovisual and Multimedia)로 그 이름을 변경했다. 1999년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토론회의 명칭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섹션 (the Audiovisual and Multimedia Section)으로 바뀌게 되었다.

실제로 도서관에서의 기술적인 혁명은 조직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지침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었다. 1997년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에 관한 토론회에서 지난 문서를 보완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지침서(Guidelines for Audiovisual and Multimedia Services in Public Libraries)로 개정하는 작은 프로젝트가 제안되었다. 이 일년짜리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지침서를 한 사람<sup>1</sup>이 정하기엔 너무 버거운 작업이라는 결론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연구를 위한 뼈대를 세웠다. 1999년 IFLA Division VI의 조정위원회는 모든 관종별 도서관과 관련 기관을 위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지침서를 준비하도록 또다른 프로젝트를 인준하였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섹션의 팀 구성원<sup>2</sup>을 임명하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이 미디어 조작과 접근에 있어서 공공이나 학술 도서관, 국가 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의 전통적인 차이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범위는 공공 도서관에만 국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의 연구는 2000년 개정된 공공도서관을 위한

---

<sup>1</sup> Bibbi Anderson (스웨덴)

<sup>2</sup> Monika Cremer (독일), Pierre-Yves Duchemin (프랑스), Joelle Garcia (프랑스), Marty Kesselmann (미국)

IFLA 지침서(IFLA Guidelines for Public Libraries)의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와 관련된 몇몇 부분의 영향을 받았다. 그 예로는 “정보필요와 정보빈곤의 차이를 해소하고, 필요한 장비의 제공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 마이크로 폼 리더기, 테잎 레코더, 슬라이드 영사기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비 제공”을 들 수 있다.

현재 지침서의 초안은 2001년 보스턴(Boston)에서 개최된 IFLA 컨퍼런스에서 발표되었고, 이때 연구팀은 개선점에 대한 많은 지적을 받게 되었다. 계획된 두번째 연구 모임은 2002년 IFLA 글래스고(Glasgow) 컨퍼런스의 빽빽한 프로그램 일정으로 인하여 연기되었다. 그리하여 지침서 초안은 IFLANET에서 온라인 상으로 출판되어 IFLA를 비롯한 다른 전문 기관에 널리 회람되었다.

2003년 7월 지침서의 두번째 초안이 그 당시까지의 모든 의견을 반영한 후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섹션 (AVMS) 뉴스레터에 출판되었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재 버전은 2003년 8월 7일 베를린(Berlin)에서 개최된 IFLA 컨퍼런스 워크샵에서 위원회 보고자들<sup>3</sup>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 2. 개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많은 정보 (정보요구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고 오락적인 흥미까지 포함)가 시청각이나 전자 포맷으로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료에 대한 접근은 인쇄 자료에 접근하는 것만큼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시청각 미디어는 우리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장래이용을 위해 보존될 필요가 있는 아주 거대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생성되는 풍부하고 다양한 매체로의 표현은 도서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이용자 서비스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정보 제공자로서의 사서는 다양한 유형의 이용자의 요구에 가장 적절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 (즉, 남녀노소, 장애자와 비장애자, 천재와 지진아)의 정보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sup>3</sup> Bruce Royan (영국), Monika Cremer (독일), Livia Borghetti (이탈리아), Kirsten Rydland (노르웨이), James Turner (캐나다), Gregory Miura (프랑스)

시청각 자료는 전통적인 인쇄 자료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일반인들(예를 들어, 인쇄된 글을 읽기 꺼려하거나 시각적 혹은 다른 장애를 가진)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개발 도상국에서는 시청각자료와 시청각 관련장비의 제공이 인쇄 자료보다 훨씬더 중요하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구술과 시각적인 표현은 교양의 척도로 언어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보다 전통적인 비전자적 시청각 캐리어(audiovisual carrier)에 관한 정지화상과 필름, 사운드에 대한 요구는 인터넷의 성장 가능성과 같이 한다. 멀티미디어와 컴퓨터 기반 정보는 도서관의 시청각자료 폭발을 초래했다. 거의 모든 도서관 이용자나 방문자는 인쇄 자료 뿐만 아니라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잠재적인 이용자이다.

이용자에게 인터넷 접속은 이용 측면에서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이용자가 새로운 미디어로의 접근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향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청각 자료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부가적이고 사치스러운 자료로 여겨져서는 안되며, 도서관 서비스에 완전히 통합된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인쇄, 시청각, 전자 (인터넷 포함)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 등 모든 자료를 다루는 혼합형(hybrid) 환경이다. 사서는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원에 대한 잠재성을 인지하여 이 자원들을 도서관 장서로 간주해야 한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수집 범위는 인쇄 자료와 마찬가지로 해당 도서관의 이용자 요구, 사업의 범위 그리고 특수한 임무와 부합되어야 한다.

### 3. 지침서의 범위

본 지침서에서의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라는 용어는 사운드, 이미지,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유형의 도서관과 정보 서비스의 수집 콘텐츠를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sup>4</sup> 또한 사운드, 정지 및 동영상, 멀티미디어 문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예를 들어, 어린이 도서관이나 언어 센터), 장서 개발, 편목, 보존, 접근 (인터넷 포함)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

<sup>4</sup> 마이크로 형태 자료(microforms)는 이 지침서에서 제외됨.

정의

**시청각(Audiovisual)**

시각 그리고/혹은 청각에 관련된 것

**시청각 자료(Audiovisual materials)**

모든 녹음된 사운드 그리고/혹은 동영상 그리고/혹은 정지화상

**멀티미디어(Multimedia)**

두가지 혹은 그 이상의 시청각 표현을 담고 있음 (예를 들어, 사운드와 이미지, 텍스트와 애니메이션 그래픽)

**쌍방향 멀티미디어(Interactive Multimedia)**

이용자가 제어할 수 있는 순서 그리고/혹은 특성에 맞게 표현한 멀티미디어

**캐리어(Carriers)**

사운드, 정지화상 및 동영상, 멀티미디어는 캐리어의 종류에 따라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포맷으로 존재할 수 있다. Section 14에서 캐리어에 대한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 4. 조직 및 행정

### 직원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원 관리는 장비 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도 필요하다.

모든 사서는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의 잠재성을 인지하고 도서관 서비스의 하나의 통상적인 관점에서 이들 자료와 장비의 제공해야 한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원과 관련된 책임과 기능은 도서관 조직 내에서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져야 한다.

대규모 도서관에서는 시청각과 멀티미디어 부서를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서비스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훈련된 전담사서가 필요하다. 심지어 소규모 기관에서도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대해 조정하고 조언하는 한명 혹은 그 이상의 직원들이 있어야 한다. 가능한 어떤 곳에서든 그들은 기술직 (내부 혹은 외부직원)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된다. 도서관 직원은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따라 몇몇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미디어 시장과 상품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고, 점차적으로는 다른 유용한 도서관들과 협력망이 가능하고 또한 유용하다.

각 나라마다 한 기관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와 서비스를 대표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교육과 훈련

문헌정보학과는 모든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의 잠재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심도있는 전문화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선택과목을 개설해야 한다.

교과과정은 이미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다루고 있는 사서와 전문가의 경험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분야에서의 교육 훈련에 대한 요구는 세 가지의 보완적이고 분리될 수 없는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바로 지적(intellectual), 법적(legal), 기술적(technical)인 차원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특별히 도서관의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부서에서 특별히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서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New South Wales 대학의 정보시스템, 기술 및 관리(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 and Management)학과에서는 시청각 관리(Audiovisual Management)분야의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미국 UCLA 대학은 동영상 아카이브학(Moving Image Archive Studies)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음악 사서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고, 예술 분야의 사서를 위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도 하다. 물론 대다수의 도서관 교육의 초점은 정보기술에 있고, 전통적인 시청각 자료보다는 컴퓨터 작업에 한층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편이다.

사서가 도서를 다룰 때 문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시청각 자료를 다룰 때 영화나 예술 음악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

미디어 전문가는 이 분야의 기술과 제품이 특히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전문가 협회의 프로그램, 도서관학 및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 다른 관련 조직에서의 교육 등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산

장서개발, 장비, 정기적 유지, 보관, 하드웨어의 수리 및 교체에 관한 인정된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은 장서 규모에 따라 도서관의 장서와 장비 예산의 비율로 정해져야 한다.

새로운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은 매년 검토되어야 한다. (5년의 상각률(amortization rate)은 이 분야에서는 너무 길다).

## 5. 수집 및 납본

도서관 내에서 그들의 책임이 무엇이든 간에 모든 사서는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포맷의 잠재성을 인식하고 이를 자원으로 간주하여 장서개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은 미디어 자원들을 명확하게 포함해야 한다. 이들 자원들에 대해 포맷에 따라 우선권과 선정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은 장서개발에서 하나의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형적인 인쇄자료의 수집 경로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 수집에 항상 유용하지는 않을 지도 모른다. 이 시장은 인쇄자료 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시장 지식 전문가가 필요하다. 적절한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지식이 요구된다.

유통 네트워크는 지역적인, 국가적인, 국제적으로 다양하고 때로는 불완전하게 조직되어있다. 이 분야에서 도서관들은 자료의 각 유형에 따른 신뢰할 만한 선별된 판매 대리점 리스트를 결정하는데 서로 협력해야 한다.

많은 도서관에서 지역적으로 생성된 자료들 (영화, 비디오 카세트, 구술역사 기록물, 음악 포함)을 수집하는 것은 좋은 관례이다. 저작권 사정을 참작해야 하는 한, 이 방법은 이들 자료를 보존하고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케 하는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문서 (특히, 희귀자료와 고문서자료)에 대한 장서구축 방법중의 하나는 기증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과 다른 쟁점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인쇄자료 기증보다 복잡하다.



납본 제도(Legal Deposit legislation)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국가별 적용은 매우 방대하다. 예를 들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료에서부터 전 분야의 모든 자료, 심지어는 온라인 자료까지도 해당된다. 또한 이러한 납본을 다루는 기관으로는 국가 및 지역 도서관, 전문 대행업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기록관, 대학 도서관과 특수 도서관 등과 같이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납본제도가 시행되는 곳에서는 그것의 장점과 적용을 장려하는 요구가 있다.

이러한 납본 자료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권한은 단지 법적인 요구가 있을 때에만 제한되어야 한다.

## 6. 저작권과 라이선싱

지적 재산권 분야에는 사운드와 동영상에 관련된 특별한 법적제약이 있다. 저자(author) 혹은 작곡자(composer)의 저작권(copyright)외에도 제작자권(producers' rights)과 공연자권(performers' rights)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세부적으로는 시청각 미디어와 관련되어있다. 한편 도서관계는 임차권(rental rights)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다. 법적인 상태(legal position)은 모든 문서에 대하여 명확해야 한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라이선싱에 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라이선스의 제한은 모든 라이선스된 아이템에 대한 권리 상태(rights situation)의 기록을 권고하고 이를 규칙적으로 경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서관들은 여러 서로 다른 유형의 출판업자들과 끊임없는 고된 협상 작업을 피하기 위해 출판업자들이 모델 라이선스 협정(Model License Agreement. 예를 들어, 도서관 및 정보 자원 위원회(the Council on Library and the Information Resources)와 디지털도서관 재단(Digital Library Foundation에 의하여 후원))<sup>5</sup>를 받아들일도록 촉구해야 한다.

가정 대여나 대중 상영처럼 좀더 광범위한 이용을 위해 라이선스 되는 경우는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때때로 시간 제한이용 (대출 장서)의 방법에 대해서도 도서관은 고려해 볼 만하다.

---

<sup>5</sup> <http://www.library.yale.edu/~license/modlic.shtml>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별 도서관이 저작권과 공연권(performance right)을 통제하지 않는다. 대신 도서관은 이들 문제에 대해 개략적으로 감독하는 국가적인 혹은 국제적인 법률 기관 혹은 IFLA, IASA, EBLIDA와 같은 기구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그들의 도서관 협회를 우선적인 조언자로 생각해야 한다.

## 7. 편목 및 서지 접근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는 당연히 국가 서지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편목의 특징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IFLA, FIAF, IASA 및 기타 기관들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편목하는 국제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각 도서관에서의 편목과 서지 업무는 공유되고 승인된 표준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이들 자료의 어려운 색인작성시는 주제 색인작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는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의 일반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위한 부가적이고 차별화된 “접근점(access points)”이 고려되어야 하며, 목록 표제는 기술적인 정보(technical information)와 이용을 위한 법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 자체의 부가적이고 독립적인 목록을 제공하여 이용자 접근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 편목 규칙들:

아래의 국제적인 (몇몇은 국가적인) 편목 규칙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

*Anglo-American Cataloguing Rules*. Prepar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Joint Steering Committee for Revision of AACR, a committee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et al]. 2<sup>nd</sup> ed., 2002 revision. Ottawa: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2002. (loose-leaf) (Co-published by the Chartered Institute of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Normes de catalogage. Domaine 164 : Documentation*

[http://planete.afnor.fr/v3/espace\\_normalisation/programmesnormalisation/22-164.htm](http://planete.afnor.fr/v3/espace_normalisation/programmesnormalisation/22-164.htm)

Association for Recorded Sound Collections. Associated Audio Archives. *Rules for Archival Cataloging of Sound Recordings*. Rev. [US]: ARSC, 1995. x, 60 p.

Deutsches Bibliotheksinstitut. *Regeln für die alphabetische Katalogisierung von Nichtbuchmaterialien [RAK-AV]*. Berlin: DBI. 1996

Die Deutsche Bibliothek: RAK-NBM-Präzisierungen. Frankfurt/M. 2001. [ftp://ftp.ddb.de/pub/rak-nbm/NBM\\_Präzisierungen.pdf](ftp://ftp.ddb.de/pub/rak-nbm/NBM_Präzisierungen.pdf)

Die Deutsche Bibliothek. Arbeitsstelle für Standardisierung: Empfehlungen für "Continuing integrating resources." Frankfurt/M. 2002.

[ftp://ftp.ddb.de/pub/rak-nbm/Empfehlungen\\_CIR.pdf](ftp://ftp.ddb.de/pub/rak-nbm/Empfehlungen_CIR.pdf)

*Rules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Russian Cataloguing Rules, RCR]*. Moscow, 1986

Dirección General del Libro, Archivos y Bibliotecas. *REGLAS de Catalogación*, 1.a ed., 2.a reimpresión con correcciones Madrid: 1988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rchives du Film (FIAF). *The FIAF Cataloguing Rules for Film Archives*. Compiled and edited by Harriet W. Harrison for the FIAF Cataloguing Commission. München: K.G. Saur, 1991. xvi, 239 p.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Guidelines for Bibliographic Description of Interactive Multimedia*. The Interactive Multimedia Guidelines Review Task Force, Laura Jizba ... [et a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94. xi, 43 p.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The IASA cataloguing rules : a manual for description of sound recordings and related audiovisual media*. IASA 1998.

<<http://www.iasa-web.org/ica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 (NB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Non-Book Materials*. Recommended by the ISBD Review Committee, approved by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IFLA Section on Cataloguing. Revised ed. London: IFLA, 1987. vii, 74 p.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 (ER):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Electronic Resources*. Recommended by the ISBD (CF) Review Group. Revised from the ISBD (CF)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Computer Files. München: K.G. Saur, 1997. x, 109 p.

Functional Requirements of Bibliographic Records. Final report. München: Saur, 1998. (UBCIM Publications – N.S. Vol.19)  
[www.ifla.org/VII/s13/frbr/frbr.pdf](http://www.ifla.org/VII/s13/frbr/frbr.pdf)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sation. 1570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Audivisual Number (ISAN)*. Geneva: ISO, 2002. v, 12 p.

## 8. 아카이빙 및 보관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분야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도서관은 서로 다른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랜기간 동안 보관하는 국가 도서관에서부터 이용자 서비스만 책임을 지는 소규모 도서관 까지) 이 글에서 아카이빙과 보관에 대한 접근은 사실상 일반적일 수 밖에 없다.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도서관은 레코딩된 원본 자료를 재생, 디지털화 혹은 변환할 때, 신호가 원래와 같은 품질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 작동되도록 물리적 화학적인 완전 무결성을 보장해야 한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캐리어를 위한 보관 환경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더러움, 먼지, 오염된 공기와 과도하거나 가변적인 온도와 습도는 손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CD와 테잎의 수명은 보관되는 온도와 습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캐리어는 화재시 진화시설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가 잘 맞도록 화학적인 유형 (예를 들어, 자기테잎, 78 rpm, LPs, 아세테이트 디스크, 광 디스크)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 미디어 (예를 들어, 비디오나 오디오 테잎)은 자기장으로부터 멀리하여야 한다.

보관 용기는 캐리어의 다양성에 따라 모양과 사이즈가 달라지고, 그리고 보관 면적의 편성과 인쇄 자료의 보관에서 획득되는 통합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개가식으로 혹은 폐가식으로 보관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도 영향을 받는다.

보존 목적을 위해서 물리적인 캐리어에 표시하는 것이 자원 자체의 원래 모습에 영향을 주어서 안된다. 예를 들어, CD나 DVD에 일반 잉크나 일반 스티커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해결책으로 특수하게 빨리 마르는 잉크나 혹은 디스크 중앙의 빈 공간에 레이저로 표시할 수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신뢰성을 인정받은 것은 아니다.

원본 캐리어의 훼손 수준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디스크 경우의 체크를 위해서는 충격, 수분, 닳은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로 눈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테잎 경우의 체크를 위해서는 자기손실, 드롭아웃이나 재생음이 흐트러지는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그널을 점검해 봐야한다. 광디스크의 경우는 재생에서 안전장치의 등급이 있기 때문에 판독기에 의해서는 손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전문 분석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캐리어의 보관 정책은 그 캐리어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장비에 대한 미래 요구까지 고려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은 시청각 보관소로부터 혹은 IASA와 같은 조직으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 IFLA는 여러 많은 비정부 조직들 (예를 들어, IASA, FIAT, FIAF, ICA, UNESCO의 시청각 아카이브 협의회)과 협력하고 있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에 관한 섹션은 IFLA 본부와 함께 IFLA의 CCAAA에서 대표한다.

이처럼 매우 복잡한 부분에서 도서관 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이들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가 전략들이 요구된다.

## 9. 디지털화 및 보존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보존을 고려하는 도서관은 표준 개발에 대한 안목이 있거나 혹은 이 분야의 좋은 사례가 되거나 경험이 많은 도서관을 본 받아야 한다.

장기간의 이용이 요구되는 유일무이한 아날로그 자료의 보존을 위해서는 종종 동일하거나 혹은 다른 미디어로 복제를 한다. 이런 복제 행위는 지적 재산권에 저촉받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정보를 복제하는 선호 수단은 디지털화다. 디지털화의 고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명확한 부가 가치를 입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보다 향상된 주제분석에 의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전문 기관이 존재한다. 디지털화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자료가 아직 어디에서도 디지털화된 적이 없는지 또는 저작권에 저촉을 받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조사는 때로는 매우 까다롭고 또한 작업에 방해 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각 자료가 단 한번만의 디지털화로 상호 공유가 가능한 디지털화 프로젝트와의 협력이 유용하다는 것을 도서관은 알게 될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는 것은 어렵고 가끔은 특정 정보의 손실 없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은 (특히 원본 캐리어의 특질 복제) 앞으로 더욱 발전될 것이다.

구 포맷에서 신 포맷으로 변환되는 기록물은 주관적인 개조나 개선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이용자가 보다 잘 보고거나 혹은 잘 들을 수 있게하기 위한 접근점이나 혹은 보급판을 향상시키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채택한 모든 요소와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압축률, 파일 크기, 픽셀, 포맷 등과 같이 모든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를 가진 메타데이터도 이 문서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디지털화된 혹은 원래 디지털로 생산된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하드웨어, 운영체제, 물리적인 캐리어 혹은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은 다양하다. 오랜기간 동안의 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몇가지 해결책이 연구되어 왔다:

**“변환(Conversion)”**은 문서를 아날로그 형식에서 디지털 형식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캐너를 사용하여 종이 문서로부터 디지털화된 텍스트 파일을 생성하고 난 뒤 광학 문자 인식(OC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 파일을 생성해 내는 방법이다.

**“재생(Refreshing)”**은 원본 캐리어의 노화에 의해 자료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사한 유형의 캐리어로 자료를 복제하는 것이다. 복제된 자료는 아날로그 혹은 디지털이다.

**“이전(Migration)”**은 보다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에 저장하여 디지털 파일의 활용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로 보다 최근 것, 공개된 표준에 보다 가까운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에뮬레이션(Emulation)”**은 시간이 지난 과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대리실행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포괄적인 디지털화 프로젝트 지침서(Guidelines for Digitization Projects)는 IFLA에 의해 출판되었다.<sup>6</sup>

## 10. 인터넷

점차 많은 미디어가 인터넷을 통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 이용자는 이들 자료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자료들은 무료로 혹은 구매에 의하여 획득될 수 있다. 몇몇 전자 출판사의 경우는 물리적인 캐리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에 의해 자동으로 변환하거나 혹은 도서관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수집하여 자료는 도서관 이용 시스템에 복제되어야 하며 이는 하드디스크, 테이프 혹은 다른 데이터 저장 시스템에 저장된다.

도서관은 이들 자료를 받아 마자 등록하고 기술할 필요가 있다. 기관 포털 소프트웨어, 디지털 자산 관리 시스템, 그리고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자료를 관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 접근을 위해 도서관에서 멀티미디어를 위해 제공된 장비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그래픽, 사운드카드, 헤드 셋)에 대한 자료는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위치와 자원

아래에 나열한 자원들은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부터의 초기 선정에 불과하다.

디지털도서관: 자원과 프로젝트들(IFLA): <http://www.ifla.org/II/diglib.htm>

디지털도서관 연맹(DLF): <http://www.clir.org/diglib/dlfhomepage.htm>

디지털화 장서 자료방: <http://www.unesco.org/webworld/digicol/>

공개문서표준화발의기구(OAI): <http://www.openarchives.org>

---

<sup>6</sup> <http://www.ifla.org/VII/s19/pubs/digit-guide.pdf>

## 11. 이용자 서비스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인쇄자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청각과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모든 도서관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뢰할 만한 그리고 완벽한 조언을 주기 위해 이들 자료들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하여 잘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도서관은 (특히 소규모 도서관이라면) 시청각과 멀티미디어 자료를 위한 특별 부서(department)는 없어도 되지만, 소규모 전담부서(part) 정도는 있어야 한다.

때로 모든 장서는 포맷에 관련없이 주제별로 배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도서는 음악자료와 함께 배열하는 것보다는 필름, 비디오 필름, 카세트 복과 함께 배열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는 모든 도서관 서비스의 목적인 대여와 참고 둘 다 고려해야 한다. 대여 서비스의 경우 대여 장소에서 이용자가 대출에 앞서 자료를 듣고, 보도록 하기 위해 컴퓨터나 혹은 일반적인 시청각 장비로 구성된 시설을 제공할 것을 권장한다.

도서관에서 시청각 자료의 이용은 소음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서비스 도입시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자원을 최대화하고 다양한 포맷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장서를 제공하기 위해 도서관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스템에 대하여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중요한 정보가 획득할 수 없는 포맷으로만 존재할 경우 이것은 구매하여 (적합한 장비와 함께) 참고 이용 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혹은 필요하다면 타 기관이나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인 규정상 도서관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시청각 자료의 모든 포맷을 이용 가능하도록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적어도 특별한 가치를 가진 자료에 대해 이러한 장비를 획득할 수 없거나 유지할 수 없다면 이전(migration), 변환(conversion) 혹은 에뮬레이션(emulation)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적절한 보안 시스템의 설치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비를 단지 구매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보험과 유지를 위해서 자금 비축이 필요하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위한 적절한 검색 도구와 참조 업무도 제공되어야 한다. 도서



관은 이들 장서에 대한 안내와 장비 이용법을 제공하여 이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이용자 교육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도서관간 상호대여 정책은 특별한 포맷에 근거한 일부를 제외하지 말고 모든 미디어 자료를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모든 수준 (지역, 지방, 국가, 국제적인 수준)의 중앙집중화 된 도서관 서비스는 이들 도서관 정책 내에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해 상호대여를 포함해야 한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도서관 상호대여에 관련하여 몇몇 국가에서는 지역적이거나 혹은 국가적인 기반에서 공식적인 상호대여 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 상호대여 제도가 없을 경우는 비공식적인 협력을 장려할 수 있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가 인쇄 자료에 비해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일 자료나 원본 자료는 상호대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신 상호대여 목적상 저작권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복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

## 12. 협력

타 기관과의 협력 협정은 정보 공유에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수서, 편목, 분류, 주제 색인, 교육, 디지털화, 아카이빙 그리고 보존 문제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약어:

IFLA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국제도서관협회연맹)

CCAAA = Coordinating Council of Audiovisual Archive Associations (시청각아카이브협회 조정위원회)

IASA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국제사운드 및 시청각아카이브협회)

ICA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국제아카이브위원회)

FIAF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국제영화아카이브연맹)

FIA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elevision Archives (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

NGO =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비정부조직)

### 기관 웹사이트:

Association of Moving Image Archivists

<http://www.amianet.org/>

Coordinating Council of Audiovisual Archive Associations

<http://www.ccaaa.org/>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http://www.ica.or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Archives

<http://www.ifla.org/>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http://www.iasa-web.org/index.htm>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http://www.fiafnet.org/>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elevision Archives:

<http://www.fiatifta.org/>

UNESCO AV (Audiovisual Archives):

<http://www.unesco.org/webworld/audiovis/avarch.htm>

## 13. 참고자료

이 지침서를 작성하면서 IFLA의 다른 섹션과 기관의 웹사이트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였다.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IASA)

<http://www.iasa-web.org/iasa0016.htm>

동영상 및 녹음사운드 아카이브 훈련을 위한 교과과정 개발

<http://www.unesco.org/webworld/ramp/html/r9009e/r9009e00.htm>

공공도서관을 위한 지침서(IFLA) 제4판 2000년 개정

<http://www.ifla.org/VII/s8/proj/gpl.htm>

대학도서관 미디어자원을 위한 지침서(ACRL)

<http://www.ala.org/acrl/guides/medresg.html>

시청각 아카이빙의 철학

[http://www.unesco.org/webworld/highlights/av\\_archives\\_120799.html](http://www.unesco.org/webworld/highlights/av_archives_120799.html)

도서관/미디어 센터를 위한 자원 리스트 (교육시설을 위한 국가 클리어링하우스)

<http://www.edfacilities.org/rl/libraries.cfm>

IASA TC-03 - 오디오 유물 보호 규약

<http://www.iasa-web.org/iasa0013.htm>

UNESCO, IFLA/PAC. 기록영화 유물 보호 규약

<http://webworld.unesco.org/safeguarding/>

## 14. 시청각 캐리어 리스트

사운드, 이미지, 멀티미디어는 캐리어(carrier)의 종류에 따라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맷이 있다. 아래의 리스트는 총망라한 것이 아니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확장될 수 있다.

### 기계적 캐리어들:

- 실린더 기록가능형 (1886- 1950s):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 실린더 복제형 (1902- 1929):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 초기 그르브형 디스크 (1887- 1960):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 초기 기록가능형 디스크 혹은 "즉석 디스크" (1930-...):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 마이크로 그르브형 디스크 혹은 "비닐" (1948-...):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 자기 테이프 캐리어들:

- 셀룰로스 아세테이트 계통의 오픈 릴 오디오 (1935- 1960):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산화철 자기 분말)
- PVC 계통의 오픈 릴 오디오 (1944- 1960): 사운드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산화철 자기 분말)
- 폴리에스터 계통 오픈 릴 오디오, 컴팩트 카세트 IEC 1, 2 인치 오픈 릴 비디오 (1959- ...): 사운드와 비디오를 위한 아날로그 포맷 (산화철 자기 분말)

- 컴팩트 카세트 IEC II, DCC, 1인치 오픈 릴 비디오, VCR, VHS, U-matic, Betamax, V2000, Betacam, D1 (1969-...): 사운드와 비디오를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포맷 (산화크롬 자기 분말)
- 컴팩트 카세트 IEC IV, R-DAT, Video8/Hi8, Betacam SP, MII, D를 제외한 모든 디지털 비디오 포맷 (1979- ...): 사운드와 비디오 1을 위한 아날로그/디지털 포맷 (자기분말을 위한 금속 소립자)

### 자기 디스크 캐리어들:

- Timex 자기 디스크 레코더 (1954)
- 플로피 디스크: 3.0 인치, 5.25 인치, 8.0 인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음), 3.5 인치 (현재): 데이터를 위한 디지털 포맷 (금속 산화물 자기 분말)
- 하드 디스크: 일반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통합, 가끔은 메모리 셀(arrays)들로 이루어짐(RAID)

### 광화학 캐리어들:

필름 포맷:

- 35 mm (1894-...; 1909년 이후에 표준포맷으로 인정)
- 준표준 포맷들
  - 28 mm (1912-...)
  - 16 mm (1923-...)
  - 9.5 mm (1922-...)
  - Super 8 (1965-...)

질산염 계통: 1895년부터 약 1952년까지

아세테이트 계통 혹은 <<안전 필름>>: 1920년대부터

폴리에스터 계통: 1970년대부터

### 광 캐리어들:

- LV 레이저 비전형 (1982-...): 비디오/정지화상을 위한 아날로그 포맷
- CD 복제형 (1981-...): 모든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포맷 (CD-V 제외: 비디오 아날로그)
- CD 기록형 (1992- ...): 모든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포맷
- MD MiniDisc 복제형 (1992- ...): 사운드를 위한 디지털 포맷
- MD MiniDisc 기록형 (1992- ...): 사운드를 위한 디지털 포맷
- CD-RW (1996-...): 모든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포맷
- DVD 복제형 (1997-...): 모든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포맷
- DVD 기록형 (1997- ...): 모든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포맷
- DVD-RW (1998- ...): 모든 미디어를 위한 디지털 포맷

<번역을 마치며>

이 한국어 지침서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청각 및 멀티미디어 자료 관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번역으로 인하여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원문을 참고하거나 혹은 언급된 참고문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장>에 언급된 캐리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는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무기재료공학과 김진호 교수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번역을 제안하고 격려를 해준 이 지침서의 저자중의 한사람인 Bruce Royan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 역자 올림 -